



《미래의 독자》번 아동문학비평가 최윤정

어린이책 비평서 《미래의 독자》를 쓴 최윤정(46) 씨는 세 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번역가, 아동문학평론가, 출판사 대표가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활동은 3개의 카테고리를 형성한다. 번역가로서 1장을 열었을 때의 배경은 대학 졸업 후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1987년이다.

“유학 후에는 대학강사 겸 번역가로 활동했습니다. 블랑쇼의 《미래의 책》을 번역한 게 첫 시도였는데 도전의식 하나만 갖고 시작한 일이었죠. 당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어요. 그저 용기만 갖고 뛰어들었지요.”

이후 그는 번역영역을 어린이 분야까지 확장한다. 아동문학평론가로서의 2장은 이 시기, 즉 《내가 대장하던 날》 《놀이 과외》 《늑대의 눈》 등 어린이책을 번역하는 중에 서서히 시작되는데, 그는 번역가로 활동하면서도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그림책》 등의 비평서를 내는 부지런함을 보여줬다. 그런 한편, 비룡

책발판의 너그름이  
전방위적인 아동출판판권  
확장의 열쇠...  
평론가 최윤정

소, 문학과지성사에서 어린이책을 기획하고, 물구나무출판사에서 주간을 맡기도 했으니 어린이출판계에서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한 셈이었다.

“사실 어린이책에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지금 고등학생이 된 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하나 고민하던 부모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린이책을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펴낸 《미래의 독자》는 그 10년 동안 느꼈던 생각들이 반영된 비평서로 최씨의 비평가적 활동 중심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준

다. '내가 사랑했던 책들'이라는 저자의 말로 시작하는 이 책은 국내 어린이책 시장 규모에 비해 비평인구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어린이의 시선'과 '비평의 시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책을 읽고 있어 어린이물 포화상태의 출판계에 맞춤형 비평집이다.

그림책, 저학년, 고학년 3장으로 나뉘 최씨의 시각으로 읽어본 책들은 약 70권. 이 책들을 소개하는 최씨의 글에는 두 개의 눈이 있다. 그는 '다니엘 페나크'를 소개할 때 "나는 다니엘 페나크가 너무 좋다"면서 천진난만한 소녀의 눈을 드러내고, 지적할 부분이 있는 책 앞에서는 냉정하게 비평가적 태도를 견지한다. 물론 '비평'이라 해서 '작정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아니다. 린다 수 박의 《사금파리 한 조각》을 객관적인 거리에 둔 채 그 한계점을 지적한 데는 미국 아이들을 위해 영어로 쓰여진 작품 앞에서 흥분하지 말고, 한국인 작가가 쓴 한국어로 된 작품의 성장을 기다리자는 속뜻이 담겨 있다. 또 장애아를 감싸야 한다는 흔한 모럴을 상징하는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의 제목을 지적할 때는 이 제목이 도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다. 이렇게 텍스트 안팎을 꼼꼼하게 검토한 흔적들은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애정'과 '격려'의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

"어린이 문학 분야는 유난히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들은 매일 혼나기만 하는데 무조건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최씨는 독자들이 이 평론집을 '권장도서목록'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책을 다 읽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안목을 키워보자고 권하는 책으로 생각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물론 그 속에는 아이들을 '읽기의 즐거움'을 아는 '미래의 독자들'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담겨 있다.

"제가 이 분야를 좋아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다른 집 아이들보다 유난히 책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이 많다 보니 오히려 귀하고 좋은 줄 모르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책이 많은 환경으로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를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그런 욕구를 심어주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발견하는 눈을 기르도록 부모님들이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 어린이 출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본다. 10년 전에는 생활동화가 전무했는데 소설처럼 리얼한 사건과 생활사를 담은 생활동화가 근래 와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양적인 팽창만 하다보니 그만큼 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느낀다. 심지어 아이들 생활을 그대로 옮기면 무조건 생활동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요, 책을 단순한 독서교재로 생각하고 문학적 완성도가 부족한 책을 내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은 체제와 계통이 너무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당한 생각'을 안하지요. 그만큼 안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힘이 없고 노화된 세계가 서양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는 젊고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우

리 출판분야에서도 큰 발판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 그 역동적인 가능성을 키워낼 '틀'이 불안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씨가 말하는 '한국적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작가, 출판사, 평론가 등 생산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원석을 잘 가공해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이들이 책 나오는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비로소 좋은 어린이책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독자는 오히려 성숙해졌습니다. 인터넷 서점 독자리뷰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요. 그 작품을 정확히 알아보고 읽어내는 눈을 독자들 스스로 키웁니다. 그런 걸 보면 희망이 느껴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 책도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도서관 사서, 부모님, 어린이책에 관심이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책을 읽고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래의 독자가 될 아이들을 위해서지요."

최씨는 지난 7월에 《바람의아이들》이라는 출판사를 열면서 출판사 대표로서 제3장을 열었다. 평론을 하면서 아예 직접 좋은 책을 만들어보자는 욕심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3장이 시작됐다고 해서 번역가로서, 평론가로서의 직함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자사 책을 검토하며 외국의 출판정보 역시 열심히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우리사회가 '미래의 독자'를 위한 아동출판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여러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글**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미래의 독자》  
최윤정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38쪽 | 값 10,000원